

이름의 의미

토기장이교회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자신을 진흙으로 고백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토기장이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빛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 쓰임을 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사 64:8)

비전

토기장이교회의 비전은 한 영혼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스스로 묵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사역하는 예수공동체, 성령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딤후 2:20-21)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반복은 무엇일까요?

"PT 선생님은 말한다.

‘한 번 더,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힘겨운 반복은 나를 지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한 번 더’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답: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엄위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 왜 기도합니까?

116문은 먼저 기도의 필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꼭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첫째 대답은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면 좋은 것이지만 안 해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기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에 힘쓰지 않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를 하든 그렇지 않든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한 쪽 측면,

즉 간구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간구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측면에서 볼 때 기도는 신자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요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는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만약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을 권리로 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고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만 두시지 않고, 반드시 진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요리문답의 제일 마지막 설명에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은혜와 성령은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기도가 없어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를 잘 치기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타 연습을 전혀 하지 않으면 기타를 잘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연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만,

기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떻게 기도합니까?

117문은 그 다음으로 기도의 방식 혹은 태도를 다룹니다.

이 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참된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기도는 외식에 불과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을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구절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구와 감사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의 형식적인 기도문을 거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형태의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방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그 다음에 요구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말했듯이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죄와 비참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의 의미는 ‘너의 능력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까닭은

기도로 구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별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는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주는 수단일 뿐.

마지막으로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가 기도를 건성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실제로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근거가

자신의 열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을 한다는 뜻이지요.

전형적으로 이교도들이 기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정성과 열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러질 수 있습니다.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상) by 이성호]

영국 국교회의 공동기도서에 대해

한국 개신교인들은 정해진(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교회의 공적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생소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교회는 기도 문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고 기도문의 내용을 종교개혁의 신학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중요한 기도문들은 공동기도서 (The Book of Common Prayer, 사실 예전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에 수록되었고 성도들은 이 책을 보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도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여기에 대항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참된 경건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기도문 반대자들: 어떻게 남이 적어준 기도문을 읽으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 기도문 찬성자들: 무엇을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 모범을 만들었는데, 이 예식서에도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주기도문 해설에서 모범적인 기도문 자체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시된 하나의 모범일 뿐이지, 그대로 따라 하라고 실어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범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보고 배우라는 것이 지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인들은 모범적인 기도문을 전혀 사용하지 않다 보니 지나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모범적 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배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7:1-8:28 기드온의 승리와 패배

본문의 위치. 앞서 언급했듯이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 열두 사사(여섯 명의 대사사와 여섯 명의 소사사), 반(反)사사(anti-judge)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대사사며, 이제 여호와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볼 차례다. 우리는 6장에서 기드온이 부름받아 명령을 받은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여호와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오(7:1-25) 이스라엘이 이 구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8:1-28). 사사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숭배가 반복적이고 하향적으로 되풀이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눈먼 자들이 되어 가고 있다.

큰 그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주의 깊게 행동하 신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찬양으로 바뀌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던 우상들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된다.

II. 사사들(3:7-16:31)

B. 제2군: 세 명의 큰 사사들(6:1-16:31)

1. 기드온(6:1-8:35, 큰 사사)

a. 기드온이 부름 받다(6:1-40)

- (1) 미디안의 억압(6:1-6)
- (2) 주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시다(6:7-10)
- (3) 기드온이 부름 받다(6:11-24)
- (4)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부수다(6:25-32)
- (5) 기드온의 양털(6:33-40)

b. 미디안이 패배하다(7:1-25)

- (1) 삼백 명을 골라내다(7:1-8)
- (2) 주님이 꿈으로 기드온을 격려하시다(7:9-14)
- (3) 미디안의 전투(7:15-25)

c. 이스라엘이 타락하다(8:1-35)

- (1) 에브라임의 불평(8:1-3)
- (2) 숙곳과 브누엘의 배척(8:4-9)
- (3) 세바와 살문나의 생포(8:10-12)
- (4) 숙곳과 브누엘의 징벌(8:13-17)
- (5) 세바와 살문나의 처형(8:18-21)
- (6) 기드온이 왕권을 거부하다(8:22-23)
- (7) 기드온의 에봇과 땅의 안식(8:24-28)
- (8) 에필로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되돌아가다(8:29-35)

삿7:9-14.미디안 진영에 내려간 기드온. 기드온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신이 직접 징조를 보고 싶어 했다. 맨 처음 여호와의 사사가 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하시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도, “당신이 말씀한 것과 관련된 징조”를 보여 달라고 했다(6:17). 여호와의 영을 입고 자신의 가족과 지파로부터 시작해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모집하고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을 때도, 양털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승리의 약속을 확증하고 싶어 했다(6:36-37). 그것도 비슷해 보이는 시험을 여호와께 반복해서 요구했었다. 7:9 이하의 본문도 마찬가지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전쟁에 나갈 것을 명령하셨음에도(7:7)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했다(7:10).

이 단락의 특징이라면 여호와께서 이런 기드온을 잘 아셔서 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알려 주신 점이다(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분명히 들어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기드온은 사람의 말, 그것도 적군의 말을 듣고서야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과정은 역설적인 두 가지 상황을 만든다. 우선 하나님은 기드온의 성품을 이해하시고 그가 익숙한 방식을 통해 그를 자신의 일에 참여하게 이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9절)과 미디안 사람의 꿈 해몽(14절)에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전히 분명히 하신다. 그런데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 과정 중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씨앗이 뿌려진다. 그것은 미디안 사람의 대화 가운데 등장하는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이었다. 하나님의 전쟁에 기드온의 이름이 사소해 보이지만 치명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계기가 기드온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엿들은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와중에 생기고 말았다.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9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전쟁 준비가 다 끝난 그 날 밤에 기드온의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 다시 드러난다. 9절에서, 여호와는 기드온에게 일어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라고 명령하신다. 그것도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이유, 즉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음을 분명히 하신다. 새번역은 “넘겨주겠다”라는 미래시제로, 개역개정판은 “넘겨주었느니라”라는 과거시제로 번역했다. 히브리어로는 흔히 완료형이라 불리는 접미동사가 쓰였는데, 이는 사건을 좀더 극적으로 묘사하는 효과가 있다.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10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명령과 약속을 친히 기드온에게 주셨지만, 그가 여호와의 확실한 말씀보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증거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호와와는 매우 잘 아셨다. 그래서 여호와와는 “만일 내가 두려워하거든”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기드온에게 그의 두려움을 솔직히 드러낼 기회를 주신다. 앞선 이야기들과의 차이라면, 기드온이 먼저 징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드온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할 경험을 가질 기회를 제공해 주신

다는 점이다. 또한 그가 받을 징조에 대해 객관적인 확신을 더할 수 있도록 “부라”라는 이름의 부하와도 함께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확신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졌음을 아셨다(11절).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약점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에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한다. 여호와와는 기드온에게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지만(9, 10, 11 절) 기드온은 “진영 근처”까지만 내려간다(11절). 필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 내러티브는 잠시 멈춰서 6:5과 관련하여 미디안 병력의 인상적인 규모를 묘사한다. 이전의 묘사에도 “해변의 모래와 같이”란 특징을 덧붙인다. 3백 명의 기드온 군대는 이제 셀 수 없는 병력으로 간주되는 군대, 메뚜기 재앙에 비유되면서(참고, 출 10:14; 신 28:38; 시 78:46; 렘 46:23; 율 1:4) 헤아릴 수 없는 낙타를 갖춘 무리와 싸우려고 한다. 이 낙타들은 지상전에서 확실히 미디안 측에 전략적 이점을 줄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 이 군대의 운명에 대한 실마리가 숨겨져 있다. 구절에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라고 기록되어 있다. ‘눕다’로 번역된 동사는 ‘엎드러지다’란 뜻도 갖고 있다. 그들이 ‘골짜기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다. 이는 에글론(삿 3:25), 시스라의 군대(4:16)와 시스라(4:22, 5:27(3번))의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된 그 동사다. 이 동사가 두 번 더 나오는데, 이어지는 꿈에 대한 기사에 나오고 나중에 8:10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적군의 죽음을 묘사할 때도 나온다. 사실 12절에 나오는 이 동사의 형태가 8:10에 나오는 형태와 동일한 것을 보면 여기서 적군이 처할 운명을 예시하는 듯하다. 이 동사는 나중에 이와 비슷한 죽음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레위인의 첩(19:27)과 베냐민 지파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20:44, 46)도 들어있다.^{ESV}

**13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한 미디안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자신이 꾸은 꿈을 이야기한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명시되지 않은 주어를 드러내며 13b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리고 (보리떡이) 장막에 이르렀다. 그리고 (보리떡이) 쳤다. 그리고 (장막이) 무너졌다. 그리고 (보리떡이 장막을) 뒤집었다. 곧 장막이 무너졌다” 정도가 된다.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매우 극적으로 묘사되었다.

¹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곡식으로 만든 보리떡은 이스라엘 농부를 상징하는 심상일 것이다. 그런데 미디안 병사는 그 심상을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특정한 인물로 해석하는 것 같다. 그러나 “떡”(히브리어로 ‘레헬’이나 “덩어리”(히브리어로 ‘찰물’)가 남성명사인데 14절에서 사용된 “이”라는 대명사가 여성 단수형이기 때문에, 그 대명사를 벌어진 상황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14절의 꿈 해몽은 보리떡에 대한 해몽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된다.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을 보여 주며, 이스라엘을 이끄는 기드온의 칼이 그 승리를 이루어 내리라는 것이 미디안 병사의 해몽이었다.(굳이 “기드온의 칼”을 “보리떡”의 해석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임을 밝히는 말 가운데 기드온의 칼이 언급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이 표현의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후에 기드온 이야기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드는 사건들의 씨앗이 이 표현을 통해 심겨진다.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무엇이 장막을 무너뜨리는가?

허리케인도, 사이클론도, 지진도, 토네이도도,

산불도, 전염병도, 산사태도, 번갯불도, 해일도, 눈사태도 아니다.

그것은 보리떡 한 덩어리였다. 물론 엄청나게 큰 떡덩어리도 아니다.

감잡기 원한다면, 베이글 하나를 생각하면 된다

(물론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 말이다).

기드온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작고 보잘것없으며

거의 쓸모없는 물체라도 엄청나게 거대한 적을 공격해

물리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셨던 것이다.

당신이 자기 공을 가지고 볼링 하러 간다고 가정해보자.

당신 차례가 돌아오자,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장난감 공기총에서 꺼내 온 조그만 BB탄 한 알을 꺼낸다.

당신은 레인 끝에 서서 그 조그만 구체를 들고

(손가락 구멍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준비 자세를 취한 다음 굴리기 시작한다.

그것이 레인을 따라 애처로운 모습으로 천천히 굴러가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을 제정신이 아니라는 듯이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 BB탄알은 잠시 후 핀들과 충돌한다.

그 충돌이 너무나 강력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나머지 핀 열 개가 모두 폭발하고,

그 파편들이 좌우로 날아가는 놀라운 연쇄 반응 속에서

레인에 있던 핀들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 아래의 글을 읽고 나누어보세요.

⁹ 그 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¹⁰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¹¹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¹²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¹³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꾸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¹⁴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삿 7:9-14, 새번역)

이스라엘의 참 용사, 천지의 창조주, 모든 나라의 심판자, 영원한 존재,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는 이 계획이 말도 안 되어 보인다는 것과 네가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 필요한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심지어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도 주목하신다. 그날 하나님은 꿈과 해몽하는 말을 통해 기드온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심으로써, 기드온의 두려움을 경배로 바꾸셨다. 우리가 만약 기드온과 같고 우리의 두려움이 경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꿈 이상의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비교, 요 14:27).^{ESV}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심지어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도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어떻게 경배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Singing I Go

E. E. Hewitt 사 W. J. Kirkpatrick 곡



1. 주 안에 있-는 나 에 게 탄 근 심 있-으 라
2. 그 두 려 움-이 변 하여 내 기 도 되-었 고
3. 내 주 는 자-비 하 셔 서 늘 함 께 계-시 고
4. 내 주 와 맺-은 언 약 은 영 불 변 하-시 니



십 자가 밑-에 나 아 가 내 짐 을 풀 었 네
 전 날 의 한-숨 변 하여 내 노 래 되 었 네
 내 궁 폼 함-을 아 시 고 늘 채 위 주 시 네
 그 나 라 가-기 까 지 는 늘 보 호 하 시 네



주 님 을 찬 송 하 면 서 할 렐 루 야 할 렐 루 야



내 앞 길 멀 고 험 해도 나 주 님 만 따 라 가 리

| 질문 |

49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했습니까?(10:29)

50 예수님께 여짜온 것은?(10:29)

51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면서 어떤 사람이 겪은 일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까?(10:30)

| 답 |

그 사람이 **자기를 옹게 보이려고**

자기를 **옹게** 보이려고. 이는 율법교사의 위선을 보여 준다.^{ESV}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는 부적절한 질문이다.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 아닌 이들”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타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더 적절한 질문일 것이다.^{ESV}

10:25~37.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21절)이 어떻게 성경의 가장 간단한 명령조차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다(참조, 27c절 및 레 19:18).^{ESV}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리고.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여리고 길에는 강도들에게 유용한 작전 기지가 된 길게 뻗은 험준한 지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도로는 29킬로미터의 노정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975미터 정도 아래로 내려간다.^{ESV}

| 질문 |

52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10:31)

53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10:32)

| 답 |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책임을 맡은 아론의 후손.

피하여 지나가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꺼려 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표현.^{ESV}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 레위 지파의 일원이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며 따라서 제사장이 아닌 자.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왔다.^{ESV}

| 질문 |

54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10:33)

55 사마리아인은 그 이튿날 어떻게 했습니까?(10:35)

| 답 |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 문화적으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참조, 요 4:9, 8:48.). 따라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심지어 보통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을 이들에게까지 돌봄과 긍휼을 베푸는 것을 뜻한다는 부가적인 요점을 강조하신다(참조,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눅 6:27, 35).^{ESV}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다쳐서 고통을 겪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본다.

자기 짐승에 태워.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할 만큼 크게 다쳤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보았고 주막 주인에게 계속해서 이 사람을 돌보도록 데나리온 둘(이틀치 임금과 맞먹는 액수)을 주었다. 예수님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필요한 만큼 돌보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긍휼 어린 돌봄을 강조하신다.^{ESV}

| 질문 |

56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질문하셨습니까?(10:36)

57 그가 이른 것은?(10:37)

58 예수님께서서 이르신 것은?(10:37)

| 답 |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 교사의 부적절한 질문 (29절)을 바로잡는다. 이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 니이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겠나이까?”라는 질문이다.^{ESV}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일 예배

신앙고백

찬양

공동기도

1.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서 쓰임 받는 우리가 되도록
2. 「아메리카」 푸에르토리코를 그리스도께로!

주기도

축복의 노래

공동체 소식

말씀

사사기 7:9-14

성찬

축도

성도의 교제

예배 안내

6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찬양인도 말씀읽기 성찬위원

07	소그룹 주일 예배		
14	김상옥	김은우	유경수 김정훈
21	박엄지	염이엘	최기순 장진영
28	정인용	전태한	김상옥 염승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오전 11:00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학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학교는 성도들의 신앙 인격과 삶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고 동시에 소명 받은 예수의 제자로 각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

진흙과정 | 성경을 여는 문

토기과정 | 복음서 · 서신서 · 성경연구

교회 소개

토기장이교회는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는 교단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회나 선교단체, 신학교를 운영하는 초교파 교회들과 단체와 학교들입니다.

kaicam.org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사역자 | 토기장이교회 안의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를 섬기는 사람들 | 장창규 목사 · 정인용 목사

11354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5 대흥프라자 4층

potter.or.kr

헌금계좌: 농협 351-0178-6172-23 (토기장이교회)